



Magnolia 2012
경희대학교 송년회

목련예술제

Magnolia Art Festival



2012년 12월 21일(금) 20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목련예술제

‘목련예술제’는 경희가족과 지역주민, 국내외 시민을 위한 축제이자,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음악회’로 구성된다. 대학과 시민이 어우러져 송구영신의 의미를 함께하는 이번 예술제는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Antonin Dvorak 안토닌 드보르작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New World)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E단조 Op.95 IV Allegro Con Fuoco.
L.Van Beethoven 루트비히 판 베토벤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트리플 콘체르토' C장조 Op.56 I. Allegro II. Largo - Attaca III. Rondo Alla Polacca
수원시립교향악단 경희음대 교수진	지휘 김대진 피아노 김정원, 바이올린 김수빈, 첼로 송영훈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E단조 Op.95 체코적이면서도 미국적인 교향악 예술의 걸작이다. 소나타 형식인 4악장은 먼저 저음현이 연주하는 육중한 서주에 이어 1주제가 힘차게 연주된다. 클라리넷이 2주제를 아름답게 연주하며 3악장 스케르초 주제도 등장한다. 발전부는 1주제 및 1악장 1주제, 2악장의 주요 주제, 3악장 스케르초 주제 등이 어우러져 전개되며, 재현부 다음의 코다에서도 각 악장의 주요 주제가 끌고루 회상된다. 여운을 남기는 관악기의 긴 화음으로 곡이 마무리된다.

'트리플 콘체르토' C장조 Op.56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대의 독주악기를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협주곡이다. 이 곡의 스케치는 베토벤이 교향곡 3번 '에로이카'를 작곡하고 있던 1803년경 나타난다. 완성은 1804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3개의 독주악기로 이루어진 특이한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합주협주곡 형식이다. 베토벤은 과거로 회귀하는 복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작품을 작곡했다. 당시의 가장 현대적인 악기와 과거의 음악형식이 자연스럽게 만난다.

출연진

수원시립 교향악단



지휘자 김대진 2008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로 들어선 김대진은 '건반 위의 진화론자'라는 음악계의 평가처럼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다시 한 번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치밀한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수원시립교향악단을 뛰어난 연주력을 갖춘 실력 있는 교향악단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선보이며 또 한 번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은 1982년 창단 이래 현재까지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서 우수한 연주실력을 바탕으로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연 60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국내외 실력 있는 단원들로 구성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품격 높은 연주회를 통해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수원국제음악제, 수원국제지휘콩쿠르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원시의 명성을 드높였다.

경희음대 교수진



피아니스트 김정원 경희대 기악과 교수 김정원은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정상의 피아니스트로 꼽힌다.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다수의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10년 서울국제음악제의 폐막공연에 솔리스트로 초청되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아시아 초연하였고, 이후 이 곡을 레코딩하여 도이치그라모폰(DG)에서 세계 최초의 메이저 음반으로 발매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경희대 기악과 인터내셔널 스칼라를 역임한 김수빈은 1996년 한국인 최초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우승, 1996년 헨릭 셰링 재단 커리어상, 1998년 에이버리 피셔 그랜트 수상 등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데뷔 앨범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로 미 빌보드 클래식 차트 9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김수빈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카네기 홀, 케네디 센터, 퀸엘리자베스 홀, 콘서트헤보우, 빈 콘체르트 하우스 등에서 공연했다.



첼리스트 송영훈 경희대 기악과 교수 송영훈은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세계를 무대로 독주회, 실내악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다.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하이든 협주곡 실황을 녹음하였고, 요미우리 도쿄 심포니와의 협연으로 일본 산토리 홀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작년 일본 마르타 아르헤리치 페스티벌과 핀란드 난탈리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Magnolia 2012

Magnolia 2012는 경희의 전 구성원이 변화와 창조의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자리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안으로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밖으로 경희의 문화예술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